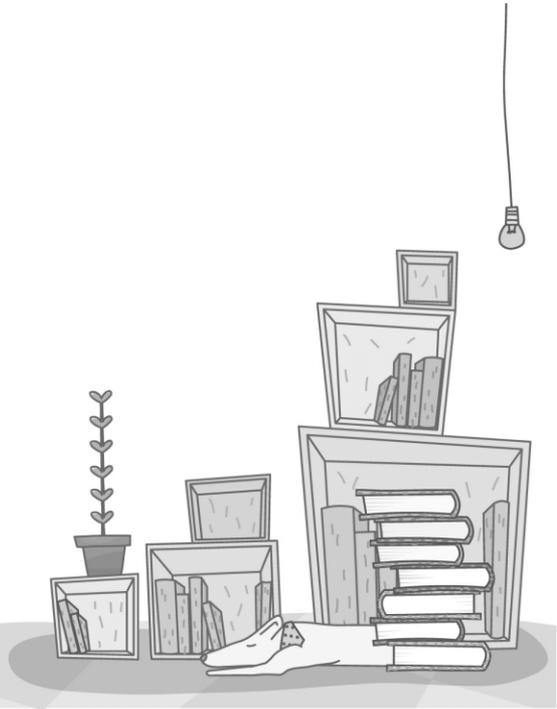


숨어있는 책 찾기



서점 둘러보기가 일과이던 시절이 있었다. 물론 서평전문지 <출판저널>에 다닐 때였다. 잡지사 사무실에서 가까운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틈날 적마다 드나들었다. 그 시기의 앞뒤로도 서점은 내가 가장 빈번하게 찾는 ‘업소’였다. 밥집보다 서점에 더 많이 갔을 거다. 헌책방은 제한적으로 출입했다. 비교적 최근엔 서울 신촌의 ‘숨어있는 책’을 자주 찾았다. 홍대 앞 ‘온고당’에도 이따금 들렀다.

요즘은 책방 출입이 뜸하다. 필요한 책을 인터넷서점에서 구입한지가 꽤 오래되었다. 집 근처 서점에는 내가 원하는 책이 거의 없다. 미리 주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는

것은 절차가 번거로워 싫다. 주문을 하더라도 책이 제때에 내 수중으로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다. 서울 신촌 인근에 꾸준히 나갈 일이 없어서 헌책방 출입 역시 가물에 콩 나듯 한다.

Don't miss a good chance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라.’ 나는 서점에서 충동구매를 안 하는 편이다. 구입하기로 작정한 책을 목적 구매한다. 생각지 않게 눈에 들어온 책을 덤석 사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눈여겨 보기만 하거나 다음을 기약하고 눈도장만 찍은 채 돌아섰다가 책을 놓친 예가 왕왕 있었다. 막상 책을 사러 서점에 갔는데 사려던 책이 서가에서 쏙 빠져 있으면 허탈하고 씁쓸하다.

『민중미술』(민중미술편집회 지음, 공동체, 1985)은 그런 느낌을 처음 맛보게 한 책이다. 1980년대 중반 인천 부평역 앞의 삼화고속 시외버스



최성일
출판평론가
robli@freechal.com

정류장 옆에 ‘한권의 책’이라는 서점이 있었다. 당시로서는 부평에서 제일 큰 서점이었고, 사회과학 서적을 다량 보유하고 있어서 자주 드나들었다. 『민중미술』을 짐해 봤다가 책을 사려고 가보니 서점 책꽂이에 그 책만 쏙 빠져나가고 없었다. 이후 새책방에선 이 책을 볼 수 없었다. 결국, 그로부터 십수 년이 지나서야 ‘숨어있는 책’에서 3천원 주고 샀다.



적인 미적 역량이 나타나는 미술활동의 전개”로 본다. “민중에 의한 표현방식의 주체성, 전달통로의 민주성, 표현내용의 전형성이 실현된 예술이다.” 이러면서 김봉준은 “민중이란 개념 규정을 다시 하지 않으면 ‘민중미술’ 개념 자체도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민중미술』

『민중미술』은 잡지 성격의 단행본이다. 무크(mook)다. 한번 나오고 말았기에 무크지(誌)라 하긴 어렵다. 그런데 내가 사려고 마음먹은 책을 누가 먼저 사갔을까? 아니면 공안당국에서 압수라도 해 간 것일까? 나는 후자에 무게를 두고 싶다. 서점에서의 책 뒤집이 빈번했던 시절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책을 다른 서점에서 못 볼 이유가 없다. 공안당국에 의해 『민중미술』은 이념도 서로 분류되었다.

“미술은 일이다. 세상을 멋있게 그리거나 만드는 솜씨이다. 손과 몸으로 솜씨를 발휘하는 노동이다. 누구는 미술을 유희충동, 자연의 모방, 물질의 재현, 관념의 표출, 정신노동으로 보지만 (그것은) 일면만 보는 견해이다. 일이 되 해방을 갈구하는 솜씨로 ‘멋진 세상’을 꾸리려는 미술이 민중미술이다. 민중미술은 인간해방, 민중해방을 지향하는 행위의 차원에서 지불되는 미술이며, 민족미술의 내용인 것이다.”(뒤표지 글)

책에 실린 「일의 미술을 위하여-민중미술을 시작하며」라는 글에서 화가 김봉준은 민중미술을 “민중 스스로 미술표현의 주체이고 자발

이 책이 금서가 된 것은 ‘민중’ 미술을 내세웠기 때문이리라. 책 앞쪽에 놓인 판화위주의 ‘민중미술 작품선’이 눈에 띄지만, 그것 말고는 1980년대의 술한 이념서적과 마찬가지로 판매금지를 당할 구석은 딱히 없어 보인다. 민중미술에 만화를 포함한 것이 돋보인다. 그런데 민중미술은 프레임을 선점당한 사례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새로 맡은 김정현 위원장은 신문 인터뷰에서 ‘민중미술’이라는 이름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었다.

“80년대 진보 쪽에서 문화운동으로서 미술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5년인가 ‘민중미술’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당시 5공화국 때인데 이원홍 문공부 장관이 문화예술인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는데 ‘미술에서도 불온한 미술이 나타났다’고 경고라고 할까, 일종의 경보발령을 하는 와중에 ‘민중미술’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어요. 그때 저는 ‘왜 우리가 하는 미술이 민중미술일까’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좀 진보적인 색채를 가진 미술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단체를 만들면서 ‘민중미술협의회’ 나 ‘민족미술협의회’ 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한겨레〉 2007년 10월 2일자)

또 ‘민중미술 화가’인 그는 “당시 대학교수인 나 자신이 함부로 민중이라는 옷을 입는 것에 이질감 비슷한 것을 느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런데 군사독재 정권의 문화공보부장관이 ‘민중미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기보다는 그의 경고성 발언을 통해 ‘민중미술’은 탄압대상이 됐다고 보는 게 맞다. 『민중미술』에 수록된 ‘민중미술 관계자로 목록’을 보면, ‘민중미술’은 1984년 발표된 논문의 표제로 널리 쓰였다. 1977년 발표된 글에선 ‘미술의 민중적 정서’라는 표현도 보인다.

루카치

헝가리 태생의 문학이론가이자 마르크스주의 철학자인 게오르크 루카치의 책이 1980년대 대거 번역되었다. 한 권 두 권 사 모으다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루카치의 책의 번역서가 꽤 모였다. 그런데 유독 한 권은 눈에 띄지도 않았다. 『변혁기 러시아의 리얼리즘문학』(조정환 옮김, 동녘, 1986)이 바로 그 책이다. 번역판 제목은 이념도서의 요소를 고루 갖췄다. “변혁기”, “러시아”, “리얼리즘”. 이 책의 원제목은 ‘세계문학에서 러시아 사실주의(Der russische Realismus in der Weltliteratur)’다. 루카치는 이 책에서 푸슈킨, 고골,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고리키, 솔로호프 같은 작가들을 거론한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은 러시아문학에서 가장 탁월한 리얼리즘 작가 몇 사람을 연구한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는, 이 작가들을 배태한 사회적 토대와 러시아 리얼리즘문학의 예술적 고유성을 밝히려 하였다. …이 책의 문제의식은 널리 알려진 리얼리즘문학의 대가들에 대

한 재평가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그들에 대한 역사적으로 정당한 특징규명 및 가치평가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러시아 리얼리즘작가들이 생활과 문학에 대해 취했던 태도표명(Stellungnahme)은 참으로 본받을 만한 것이다.”(1, 2판 서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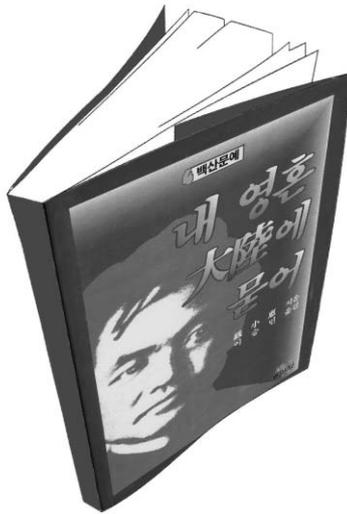
이 책 역시 ‘숨어있는 책’에서 2천원에 구입했다.

〈녹색평론〉

1990년대 초반 부평 한겨레문고에서 다시 한번 『민중미술』과 비슷한 일을 겪었다. 이번에는 아이젠슈타인의 『인쇄 출판문화의 원류-근대 초기 서구의 인쇄혁명』(전영표 옮김, 범경출판사, 1991)이 그랬다. 책값(8900원)이 약간 부담스러워 망설이다 놓쳤다. 책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서점에 들렀으나, 몇 권 안 되는 출판 관련서적 가운데 이 책만 쏙 빠져 있었다. 책 뒤짐을 당한 건 아니고, 눈썰미 밝은 사람이 먼저 사갔거나 출판사에 반품했거나 둘 중 하나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들로 나뉜다. 1부는 필사본에서 인쇄본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특징을 개관한다. 2부에선 인쇄 출판문화와 다른 문화발전과의 관련성을 짚는다. ‘숨어있는 책’에서 3500원에 구입.

환경생태잡지 〈녹색평론〉을 꾸준히 보기 시작한 것은 1996년 무렵부터다. 헌책방에 들들 적마다 눈에 들어오는 대로 곁호를 채워나간 것이 지금은 창간호(1991년 11-12월)와 제13호(1992년 11-12월호)만 빼고 다 있다. 그런데 〈녹색평론〉 초창기 과월호 책값은 1500원에 불과했다. 잡지의 가치에 비해 너무 저렴한 가격이다. 하기가 책값이 상대적으로 비쌌던 서

을 청계천 어느 헌책방에서 당국의 허락 없이 펴낸 <창작과 비평>(통권 57호, 1985)을 천원인가 2천원인가에 얻기도 했다. 우리나라 최초 생태잡지의 의미와 출판사 등록취소의 빌미가 되었던 계간지의 역사성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鄧中夏

등중하(鄧中夏) 평전 『내 영혼 대륙에 묻어』(錢小惠 지음, 이승민

옮김, 백산서당, 1986)는 내가 아끼는 책이다. “이 책은 중국혁명의 일 시기를 배경으로, 한 지식인의 자각과 실천 그리고 그 생애를 묘사하고 있다. 등중하는 실제인물로서 39세의 젊은 나이에 장개석 정부에 의해 사형당하기까지 중국혁명의 주요시기(5.4운동에서 서안사변 전까지)에 정열적인 활동을 전개한 노동운동가이자 또한 혁명적 지식인이었다.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이 흔히 그렇듯이 반봉건 반식민지상태에 처해 있던 중국의 현실을 개혁하고자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수많은 사람 중의 하나였던 등중하의 삶 또한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적 삶의 한 전형으로서 보다는 실천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고 성숙시킨 고뇌에 찬 한 인간으로서 더욱 소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책날개 문구)

나는 이 책에 흠뻑 취했다. 그의 불퇴전의 삶은 너무도 감동적이었고, 비극적 최후는 몹시 안타까웠다. 우리집에는 이 책이 두 권 있는데 표지가 다르다. 한 권은 연애시절 아내에게 선물한 책이다. 또 한 권은 헌책방에서 2천원 주고 산 책이다. 나는 군 입대 전에 이

책을 읽었다. 그런데 제대하고 와보니 책이 없어졌다. 큰형님이 형님 친구 분에게 책을 빌려줬는데 회수가 안 된 모양이다. 그로부터 10여 년 후, 헌책방에서 내 책을 되찾는다. 하지만 내 책이라고 확인하긴 이르다. 내가 읽었다는 흔적이 전혀 없어서다. 20년 전만 해도 책에 메모하는 건 물론이고, 밑줄을 긋는 것도 내겐 아주 예외적인 행동이었다. 하나

뿐인 단서는 면지에 연필로 적은 날짜다. 이마저 숫자와 점으로 이뤄져 있다. 숫자의 글씨체가 내 필체와 흡사하다. 이 책은 정말 내 책이었을까?

서점과 출판사에서 책 찾기

새책을 파는 서점에도 책이 숨어있다. 1997년 7월 23일, 서울 영풍문고를 배회하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편지 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보낸 것을 골라 엮은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될까』(임미진 옮김, 공동체, 1990)를 ‘발견’했다. “아무튼 뭔가 좋은 일을 하나 하고자 한다면 불평을 하거나 갖 태어난 강아지처럼 껴안고 울지 말고 그 일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차남 질리아노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제가 생겨 절판하거나 출판사에서 거둬들이는 책이 서점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서울 외곽 중대형서점에 그럴 가능성이 높았다. 표절이 문제가 된 ‘책세상문고·우리시대’의 『나, 아바타 그리고 가상세계』는 인천 주안역 앞에 있는 서점에서 만났다. 유족의 반발로 배

본을 철회한 『살구꽃 봉오리를 보니 눈물이 납니다』는 서둘러 '가로채기'에 성공했다. 아무리 진열공간이 넓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다 책의 드나들이 빨라져 서점에서 책 찾기는 옛말이 되었다.

엠마누엘 레비나스의 『윤리와 무한』(양명수 옮김, 다산글방, 2000)은 한동안 품절 상태였다. 책을 복사라도 하려고 국립중앙도서관을 찾았으나 거기도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도서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센트럴시티 영풍문고에 들렀다. 안내 창구에 검색을 요청했더니 책이 있었다. 2005년 6월 4일, 내가 구입한 『윤리와 무한』은 석달 전 출간된 초판 2쇄다.

한겨레문고는 부평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선 대형서점이다. 서점 위치가 접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괜한 걱정이었다. 그러나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몰락의 징후가 뚜렷할 즈음 재고도서를 천원에 팔다가 나중에는 5백 원으로 책값을 낮췄다. 그리고는 얼마 안 있다 문을 닫았다. 폐업 직전,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더글라스 아담스 지음, 김장환 옮김, 새와물고기)의 첫 번역 둘째 권(1995)과 넷째 권(1996)을 손에 넣었다.

출판사에서 책 찾기는 운이 따라야 한다. 출판사에 책이 있으리란 보장은 없다. 1998년 어버이날 서울 인사동 소재 심설당에서 엘리야스 카네티의 『구제된 허』(양혜숙 옮김, 1982)와 『궂속의 횃불』(이정길 옮김, 1982)을 구입했다. 1997년 초에는 20퍼센트 할인가격으로 『김기림 전집』 중 세 권을 심설당에서 샀다. 체슬라브 밀로시의 『사로잡힌 영혼』(안정효 옮김, 을유문화사, 1980)은 책을 펴낸 출판사에서 거저 얻었다.

답장

여기 저기 쓴 글이 인터넷에도 오르곤 한다. 일전에 어떤 분이 내가 2002년 여성문화이론 연구소에 기고했다는 글을 보고 메일을 보냈다. 사연은 내가 다른 책을 팔 수 없느냐는 거였다. 그 책의 소재를 찾다가 내 글을 검색한 모양이다. 나는 이런 내용의 답장을 띄웠다.

“아무개님께

그럴 생각 없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가 가진 책을 팔아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제게 없어도 그만인 책을 남에게 주기도 하지 만 아주 드뭅니다. 『이긴자가 전부 가지는 사회』(로버트 프랭크·필립 록 지음, 권영경·김양미 옮김, CM비즈니스, 1997)를 왜 못 드리느냐 하면, 이 책은 언제든 제 글 쓰기의 참고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서울 신촌에 있는 '숨어있는 책'에서 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님께 헌책방에서 이 책을 만나는 행운을 기대합니다.

최성일 올림”

이런 줄 알았으면 그때 책을 사들 걸 그랬다. (☹)